

11.11 모이자! 전국 노동자대회!

2023년 11월 11일(토) 서울 도심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노동자대회가 열린다. 1970년 11월 13일, 열사가 돌아가신 지 53년이 지났고 1988년 열린 첫 노동자대회로부터도 25년이 지나도록 한국의 노동자들은 열사의 기일에 모인다. 해마다 당시 노동자의 가장 절실한 목소리를 듣고 알리고 싸워왔다.

힘에 의한 평화?

2차례 세계대전과 냉전 시기를 지나 짧았던 지난 30~40년 간 평화의 시기는 끝났다고들 한다. 2022년 2월 세계의 주요 화약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시작된 지도 2년이 되어 가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으로부터 중동의 화약고도 터졌다. 각지에서 휴전 요구가 들끓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지상전을 본격화했다. 세계는 중동의 무장단체와 국가들로의 확전에 노심초사한다. ‘힘에 의한 평화’의 상징이었던 이스라엘에서의 강경파 득세, 대화외교 부재가 어떻게 전쟁으로 이어지는가를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마찬가지로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운 윤석열 정권의 외교 정책과 한반도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무능해서 위험하다. 한반도를 비롯한 대만 등 동아시아 또한 ‘세계의 화약고’라 불린다.

선진국 대한민국

소위 ‘짧은 평화의 시대’는 지구적 전쟁은 없을 거란 전제로 세계를 촘촘한 생산과 무역 관계로 엮어놓았다. 그래서 지금 세계 곳곳의 전쟁은 우리 경제와 삶에 예측불가하고 치명적이며 장기적인 타격을 입힌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여파로 유가가 출렁이면 물가인상-경기침체-환율변동-강달러-금리인상 등의 연쇄 효과를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코로나와 전쟁으로 더욱 열악해진 노동자 시민의 삶을 더 벼랑으로 내몰 수 있다.

이는 정권과 자본의 반노동 기조와 맞물려 무권리 노동자뿐 아니라 기존 노동조합에 대한 공세로 이어진다.

‘짧은 평화의 시대’ 세계적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에서 산재사망과 같은 중대재해 문제가 공격받고, 노동

권이 후퇴하고, 이주자는 더 차별하는 정책이 노골적으로 등장한다. 경제란 건 정권의 알 바가 아니고, 오로지 노동자 때리기로 세계적 위기를 돌파해 나가기로 한 듯 하다.

오늘의 전태일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나라에서 자신 또한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밑바닥 여공들의 처지에 공감해 자기 몸에 불을 붙여 그들의 존재를 알리고 권리를 외칠 수 있도록 했던, 전 사회·시민적 연대의 불꽃이 된 전태일 열사가 2023년을 산다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외칠까? 깊이 얘기해보자.

민주노총은 11월 11일 ‘120만 전태일의 반격, 퇴진광장을 열자!’는 슬로건을 걸고 노동·민생·민주·평화를 파괴하는 정권에 맞선 투쟁을 진행한다.

지금 당장 절박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마당을 열어 함께 힘을 보태자. 노동권과 평화의 목소리로 함께 노동자대회에서 만나자.



만나볼까?

경기지부 1만 돌파의 주인공들

2023년 9월로 경기지부 조합원 수가 1만명을 넘어섰다. 10여년전 3천명 정도 되었던 규모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다.

2017년 박근혜 퇴진 촛불 이후 노동조합 가입률이 대폭 증가했다가 윤 정권 출범 후 전체적으로 주춤해졌던 와중에도 경기는 꾸준한 조직사업과 신생노조에 대한 전조직적 지원 기풍을 바탕으로 2년 사이 1,500여명 조합원이 늘었다.

1만명 달성(?)의 결정적 시점에 함께하게 된 신생 사업장들을 만나보자.

티씨케이지회



9월 9일(토) 안성의 티씨케이지회가 설립 총회를 열고 노동조합의 시작을 알렸다.

티씨케이회는 흑연제품을 제조하는 일본계 기업으로 여기서 생산하는 고순도 흑연제품은 반도체, LED, 태양전지, 전기차 등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다.

평균 연령이 3~40대인 250여명 조합원으로 이뤄진 티씨케이 지회는 저임금, 강제 연차, 일방적 노무관리, 고용불안, 소통부재 등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대등한 노사관계를 만들어 해결하고자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현재 4차까지 교섭을 진행했고, 기초협약을 통해 조합 사무실과 전임 등을 확보해 초석을 다졌다.

대한광통신분회_시흥안산지역지회

10월 4일(수) 따끈따끈하게 가입한 대한광통신분회는 안산에서 광섬유 케이블을 만드는 노동자들의 새로운 공동체다.

조합 설립 직전까지 3차례에 걸친 희망퇴직이 진행되는 등 고용안정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이 꼭 필요했던 75명이 뭉쳤다.

조합 설립 직후부터 임원을 추가로 선출해 조직을 더 단단하게 갖추고, 전조합원 간담회를 통해 마음을 맞추었다.



그과정에서 11월 1일 첫 교섭 상건례가 열렸다. 대한광통신분회의 밝은 앞날을 위해 지부 모든 사업장이 빛을 모아가기를!

1회 지부장배 족구대회 열려

모베이스전자지회 위 - 계양전기 - 에스제이엠 각 2, 3위

10월 21일(토) 안산 화랑유원지 족구장에서 경기지부장배 첫 족구대회가 열렸다. 계양전기, 대원평택, 말레동현화성, 모베이스전자, 에스제이엠, 코리아에프티, 시흥안산지역지회, 신한발브 등에서 10개 팀이 출전해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모베이스전자-계양전기-에스제이엠지회가 접전 끝에 상위 순위를 차지, 족구는 구력과 팀워크의 스포츠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비대면 3년을 지나며 위축되었던 직접대면을 키워 지부 사업장들이 함께하는 운명공동체라는 감각을 꾸준히 키워나갈 계획이다.

